중국 섬유산업 - 제2발전단계 진입

1980년대부터 경제발전을 위한 “개혁 · 개방” 정책을 추진한 중국은 홍콩 인접지역과 연해(沿海)지역으로부터 자본주의 국가와의 교역과 산업투자 및 위탁생산이 활발히 추진되었다. 이에 점차 자신을 얻기 시작한 중국은 등소평의 남순강화(南巡講話)로, 그 동안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달고 있었던 문호를 개방하여 연해지역의 산업이 급속히 발전하였고, 특히 섬유산업은 주축산업으로서 눈부신 발전을 보였으며, 인근 여러 나라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특히 일본의 섬유공업은, 중국에서 생산된 저가 섬유품이 파도와 같이 쏟아져 들어와 품질은 보잘 것 없으나 가격면에서 일본 제품은 완전히 경쟁력을 상실하여 붕괴되기 시작하였다. 오늘날에 와서 섬유공업은 분야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으나, 일본 면방의 경우 전후에 1972년의 시설규모를 정점으로 보면, 현재는 180만추 규모로 위축되어, 이제까지 살아남은 면방 기업들은 중국은 물론, 기타 여러 나라들도 감히 추격할 수 없는 기술수준과 이에 의한 신상품, 신기술 개발 능력을 살려, 중국 등 인접국에 확보하고 있는 해외 생산거점을 적절히 활용하면서, 필사적으로 살아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런데 2002년도부터는, 그 동안 일본의 기술과 시설에 의하여만 가능하였던 고부가가치 섬유품을 중국에서도 일본 기술과 값싼 노동력으로 생산한 제품을 세계시장 및 중국내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가격으로 공급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므로 일본에서만 생산하던 고부가가치 상품들이 해외에서 값싸게 생산되어 국제시장에 공급되기 시작하자 일본내 섬유공업은 한층 더 큰 타격을 받게 되었다.

일본의 주요 면방기업들은 2002년말 중국이 WTO에 가맹하자 머지않아 닥

칠 완전히 개방된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체제에 대비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중국은 2002년 11월 중국공산당대회에서, 그 동안 노동자와 농민을 위한다는 공산당이, 사영(私營)기업인도 공산당에 가입할 수 있게 정치체제를 바꾸고, 선진 자본주의 국가와 같게 고객과 시장을 중요시하는 경제 활동을 정식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개인이나 기업이 이윤추구나 사유재산의 안정 · 보호로 중국의 산업은 더욱 계속 발전하여 국제적 지위도 크게 높아졌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그 동안 많은 기업들이 생산시설을 중국으로 옮겨, 생산거점으로 잘 활용하고 있는데, 요즘은 소비시장으로써도 중국이 크게 부각되고 있어, 지금 추세라면 머지 않아 일본의 섬유산업은 완전히 중국에 빨려 들어가 버릴 위험도 있다는 우려도 점차 표면화하고 있다.

섬유의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중국 연해지역의 인구는 줄잡아 약 1억 4천만 명으로서 일본보다도 많다. 이 연해지역만을 보면 GDP가 1980년대에서 1990년대에 이륙단계(離陸段階)라고 볼 수 있는 제1단계를 통과하였으며, 2000년부터 제2단계인 고도 성장기로 진입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한 발전동력은 적극적인 외국자본의 유치, 신기술 도입, 선진국의 경영방식 도입과 중국의 중 · 서부 오지(奧地)의 저임금 노동자를 얼마든지 고용할 수 있어, 연해지역의 유리한 국제 경쟁력을 장기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유리한 조건이 순조롭게 중국을 발전시키게 되면, 일본뿐 아니라 인근 여러 나라의 섬유산업에 큰 타격을 입힐 뿐만 아니라 시장구도에 큰 변화를 초래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일본 섬유시장의 업자들은 그 동안 중국에 섬유품의 생산을 위탁하거나 중국상품을 저렴하게 수입하여 일본시장에서 판매하여 높은 이윤을 봐왔으나 앞으로 얼마나 지속 가능한지 모르

겠다. 중국의 섬유공업은 소재에서 어패럴 제품까지 방대한 규모의 일관 생산체제가 많아, 섬유품의 수출도 2000년에 532억 달러였으며, 2005년에는 600억 달러 수출도 가능할 것이다. 또한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수많은 화교들의 판매상으로, 머지 않아 일본내에 중국계 소매업도 침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앞날을 위한 워밍업(warming-up)은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 연해지역에서 시작되고 있다. 중국 섬유산업의 제2발전단계로서 섬유공업 및 섬유의 소비구조를 질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의 원천은 다음 5개 항목으로 요약된다. 이들 5개 항목의 개별적인 발전과 이들의 상승(相乘)효과로 중국의 섬유산업은 놀랄만한 발전을 계속할 것이다.

① WTO 가맹으로 섬유의 수입관세가 면 · 감세(免 · 減稅)되어, 중국 섬유공업은 국제 경쟁력이 필연적으로 강화될 것이다.

② 연해지역 소비자의 소득이 증가하여 이들 지역에서는 저가 · 저품질 섬유품은 안 팔리게 된다.

③ 우수한 섬유기술계 대학 졸업자는 정부에 의한 배치제도가 폐지되어, 자율적으로 거대한 섬유공장에 취직하는 비율이 높아진다.

④ 섬유기술의 향상에 눈뜬 중국 섬유기술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기술을 습득하기 시작하고 국제적인 품질규격 인증을 취득하는 공장이 증가하고 있다.

⑤ 선진 구미 · 일본 등으로부터 최신 섬유기술정보와 최신 패션정보를 손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런데 일본의 섬유기술은, 공장을 평생직장으로 믿고 있는 숙련된 현장 기능자들과 우수한 대학졸 섬유기술자들로 유지되어 왔다. 이들 고참 기술 · 기능자들이 줄줄이 공장을 떠나고 있는데, 우수한 젊은이는 보충되지 않고 있어 후계자를 양성할 길이 없다.

반면에 중국은 잠재능력을 갖고 있는 기술자, 기능자가 많다. 이들은 그들

의 제품이 품질면에서 선진국보다도 뒤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 국제적으로 인증되는 ISO의 자격증, 즉 패스포트를 적극 취득하려 하고 있어, 이를 가볍게 봐서는 안 될 것이다.